



전업목장 경쟁력강화 한국 · 이스라엘 낙농세미나 지상중계

2001년 12월 5일 여주군 소재 일성남한강콘도 대강당에서 낙농기등 관련인 4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업목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 · 이스라엘 낙농세미나」가 개최 되었다. 이에 본지는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주>

예후다 스프레처교수(예루살렘 히브리우대학)「목장규모 확대에 따른 우사시설 어떻게 할 것인가」

우사는 급수와 급수설비가 가장 중요하다.

급수조의 규격은 넓이 40cm, 깊이 깊이 45cm가 적당하다. 소가 자연스럽게 목을 구부린 상태에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급수조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 가까울수록 좋다.

두당 급수조의 길이는 최소 8인치(20cm)이어야 하며 급수조는 한쪽면만을 이용토록 설치하는 것이 좋다. 정면에 힘센 소가 보이면 힘이 약한 소의 경우는 접근을 양기 때문이며, 급수조의 길이가 5m를 넘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워터컵이나 니플 형태는 젖소에게 좋지 못하다.

급수조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배치하되 특정위치에 뵈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사료조에 가까운 곳에 급수조를 설치하면 사료섭취량이 증가한다. 자유공간 주위에 급수조를 설치하고 착유실에서 돌아 나오는 곳에도 설치하면 좋다. 다만 이때는 뒤에서 나오는 소의 길을 막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급수조 재료는 강판이나 갈바륨처리 강판이 좋다. 더울 때는 모든 급수조가 햇빛으로부터 차단되게 하여야 하며 추울 때는 전기 가열등으로 열지 않도록 해야 좋다. 물의 온도는 섭씨 18도가 적당하다. 급수조 부근에 폭포소리등 음향효과를 주면 음수량을 늘릴 수 있다.

슈멜 부룩스테인강사(예루살렘 히브리대학 코레트 수의학교)「고능력우의 번식장애 해결 방안」

이스라엘의 낙농시스템은 축우개량 수의서비스(ICBA)를 비롯 홀스타인협회(Herdbook)·인공수정센터·보험 및 공제조합을 들 수 있다. 이외 우유마케팅협회와 이스라엘정부에서는 수의 및 지도서비스를 담당중이다.

이스라엘의 낙농은 전체 젖소 두수의 62%가 키브츠에서, 37%는 모샤브에서 각각 사육되고 있다. 지난 5월을 기준 우군은 1천57개이며 등록된 홀스타인 암소는 17만7천6백25두이다. 홀스타인 비육우군은 8백40이며 5만2천3백62두가 사육되고 있다. 육우군은 71이며 2만7천3백70두가 사육중이다.

종합우군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우선 일상적인 진단을 통한 조기진단과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농장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 질병예방은 급여프로그램을 추적하거나 백신 및 예방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실험실을 실시간 이용하는 것을 권유한다.

좋은 환경의 건강한 젖소가 산유량이 높고 좋은 번식성적을 낸다. 이스라엘의 여름온도는 30~40℃ 사이로 키브츠의 경우는 1일 착유장에서 3회를, 사료조에서 4회 등 모두 7회의 샤워를 시켜주

고 있다. 농장주들은 개체에 대한 온도를 측정하는데 어느 개체가 섭씨 39℃가 되면 샤워를 시켜 준다. 이와같이 키브츠와 모샤브간 착유성적 차이는 쿨링시스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능력화에 따라 건유의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건유하기 시작하여 첫수정이 될 때까지를 휴식기 또는 건유일수로 계산하는데 1차수정에서 임신이 되었는지 2차수정에서 임신이 되었지간에 공태 기간은 보통 경산우는 60~90일이며, 초산우는 80일~1백일이다. 모 목장의 경우 '96년 80일 이었던 공태기간은 '99년 90일로 2000년에는 1백일로 늘었다.

이스라엘의 평균산차는 4~5산이다. 도태원인은 목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방염과 TMR 밸런스가 안맞아 나타나는 제4위 전위증등 질병에 기인된다. 신체지수는 마른 것을 1로 과비된 것을 5로 하여 1에서 5까지를 설정한다.

만약 4.0 이상이 되면 케토시스 등 대사성질환이 오기가 쉬우므로 3.5~4.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김덕영 박사(천하제일사료)「육성우 사양관리 및 국내 사육실태」

육성우 사양관리의 중요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대다수 낙농가들은 착유를 하는 젖소에 대해서는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육성우에 대해서는 게을리 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오늘의 후보축은 내일의 착유우이다. 목장의 미래이다. 유전능력의 최대발휘는 육성우 사양관리로부터 시작된다.

다시말해 육성우 사양은 낙농생산성과 경영개선 시작이다. 초유는 분만 즉시 적어도 30분 이내에 2kg을 급여하고 6시간 이내에 2kg을 추가 급여해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총 1백g 이상의 immunoglobulin(면역물질)을 섭취토록 해야 한다. (㉞)

